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경건한 사람들

성경: 사도행전 13장 43-49절

Tag:

43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 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행13:43-49)

경건한 사람들 (godly man)

구약성경에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약 10회 정도 나오고, 신약성경에서는 약 50회 정도 나온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의 생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됨)

구약에서는 대부분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단어.

신약성경에서는 주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고 디모데전후서, 베드로전후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삶과 관련해서

나온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하나님스러움을 나타낸다.

좀더 엄밀히 따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을 뜻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지으신 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을 경건한 사람들과고 부른다.

그런데 한문으로 경건은 좀 더 동양스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단 경건의 경(敬;공경할 경)자는 두려워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훈련되는 개의 모습인데, 개가 주인의 회초리를 무서워하면서 배운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한다. 건(虔;공경할 건) 자는 호랑이 무늬를 뜻하는 글자로 삼가고 조심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경건이란 가르침을 통해서 배운다는 동양적 유교적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우선 그들은 천사를 볼 수 있고, 천사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비록 천사는 보지 못했지만, 이들의 말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현실세계와 겹쳐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곧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

참경건과 거짓 경건이 있는데, 참 경건은 말씀을 깨달을 때 즉시 과거의 행실을 버린다. 거짓 경건은 과거의 행실을 버림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민감하다. 어차피 거짓 경건 자체의 용도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건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재빨리 계산한다.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면, 유력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면,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는지,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는지를 재빨리 가늠하게 된다. 거짓 경건

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세속적인 삶의 유불리에 민감하다. 이런 사람들은 뇌가 천천히 움직이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재빨리 유불리를 계산한다.

참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참 경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참 경건을 선택하고 거짓경건은 버린다. 왜냐면 모든 유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이다.

반면 거짓 경건은 경건으로 자신이 무엇이든지 유익을 얻게 되거나 손해를 상쇄할 때 경건한 삶을 선택한다. 어떤 것이든 자신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면 참 경건은 무시된다.

참 경건은 진리의 말씀을 갈망한다. 경건한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생각을 많이하고, 논리적인지를 따지고, 냄새를 맡고, 입에 넣어 보고, 씹어보고, 그대로 따라 해보고, 입어보고, 신어보고, 하면서 정말로 진리가 맞는지를 실험해 본다. 대충 맞겠지 하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참 경건한 사람들은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된 말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른척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집이 무너지는 것은 비가 한방울 새는 것을 무시하면서부터 시작한다. 집이란 원래 물이 한방울이라도 새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척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이다. 기도에 마음을 담는다. 기도란 구체적인 속 마음의 표현이다.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는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듣고 계신다. 하나님도 감동이 되셔야 은혜를 베푸신다. 길게 기도하지만 듣기 싫은 기도가 있고, 짧지만 마음에 쏙드는 기도가 있다. 가장 좋은 기도란? 길게 기도해도 싫지 않는 기도란 사랑이 듬뿍 담긴 기도다. 이런 기도는 짧을 때 서운한 기도다.

참 경건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순종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어하고, 또 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기 위한 지혜를 구하면서 만족한다. 그래서 순종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과 정성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 거짓 경건은 핑계를 찾고, 싫은 마음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회당에서 설교하게 되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뀜. 다소는 바울의 고향)

사도행전 13장은 최초의 바울 설교가 소개 됨. 앞 부분은 스테반의 설교와 비슷하나, 스테반의 설교는 솔로몬의 성전을 집중 공격하나, 바울의 설교는 다윗과 그 후손 메시야에 집중한다.

특히 다윗의 시편 2편 7절

**7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가 메시야임에 대한 증거는 세례요한의 증거를 제시한다.

또 이미 선지자들이 예수에 대해 많이 예언 하였으나,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 그를 죽이게 하였으니, 이는 성경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10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16:10)**

우리는 이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죄사함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의 피로는 죄사함을 얻게 된다.

5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합1:5)

바울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는 부탁을 받게 된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에 입교한 헬라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믿었다.

-이들은 비록 헬라 사람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어 유대인이 되어 회당에 출입하게 되었고, 이제 바울의 말씀을 천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내적 확신을 경험하게 된다.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는 진일보하게 되고 교회는 힘을 얻고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교인이 됩시다.

아멘.

<찬양예배;제자훈련>

제목 : 사랑이 준 소망

성경: 로마서 5장 1-10절

Tag: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5:1-10)

*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신 예수님.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롭게 되는 일이 어려우나, 그 모든 험악한 일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길을 닦아 주심.

-예수님께서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심. 단,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심.(당연한 논리. 대속은 사랑이지 세일이 아님. 형벌이나 저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음. 일만 달란트임)

-사랑은 믿음으로 접속되는 것이지, 돈이나 지식이나 어여쁨으로 불가능함)

-믿음은 감사와 순전함과 신실함과 경건으로 지속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난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믿음이 없는 삶은 느와르일 뿐. 어두운 세상. 비열한 거리, 친구야 하와이는 니가 가라. 세상이 왜 이래. 국정원장 박지원의 고백-국가 정보가 정치 느와르정보로 변함.

-믿음은 광야생활로 접어드는 삶.

-광야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야생활에 익숙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광야생활에서의 원칙이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를 번성하게 하는 원리가 됨. (넘버3 씬마이들의 원칙과 정 반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을 이용하며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남으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를 익히게 된다.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연단이란 고수, 달인, 전문가를 뜻함.

인내할 때 익게 됨. 맛있고 멋있게 숭고하게 익어야 함. -부지런해야 함.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내가 이미 인내를 통해 연단되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해가 되지 않기 때문.
- 느와르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멸망하기 때문에 느와르.
- 믿음으로 말미암은 광야 생활은 결국 우리를 연단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소망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됨
- 또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됨.
- 소망이 이루어지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이 곧 승리.

- 죄를 지으며 불꽃처럼 살 것인지.
- 선하게 살면서 모든 것들을 사랑하며 살 것인지.